



'녹차문화와 함께 차를 더해보요' 프로그램 모습.



'오후의 차발(그랜드 티파티)' 모습.

사진제공=보성군청

보성 말차, 트렌드 품고 관광객 발길 이끌었다

대한민국 대표 차 문화관광축제인 '제 49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전국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를 주제로 초록빛 보성차밭을 배경으로 전통 차문화와 세계적인 말차 트렌드를 접목한 신규 콘텐츠를 대폭 선보였다.

또 사전 예약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며 관광객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였다. 대표 프로그램인 '오후의 차발(그랜드 티파티)'과 신규 프로그램인 1박 2일 감성 캠핑 '보성에 물든 달'은 예약 개시 3일 만

디저트·음료·카테일 등 시음 프로그램 젊은층에 인기 차별화된 차문화 콘텐츠...글로벌 관광축제 발전 기대

에 전석이 마감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후의 차발(그랜드 티파티)'은 보성 차밭 풍경 속에서 전문 티마스터와 함께 보성차와 디저트를 즐기는 프리미엄 티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말차 브랜드관'은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서 보성말차를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 말차 카테일 체험, 시음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젊은 층 관광객들의 발길 이어졌고, 보성말차의 경쟁력과 산업 확장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축제의 흥행을 견인했다.

'보성 Tea지킴-100(녹차올림픽)'은 팀 대항 게임과 협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며 현장 참여도를 높였고, 힐링·음악·청년·마술을 주제로 구성된 '보성 Tea-Concert(티-콘서트)'는 매일 색다른 공연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풍성

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녹차 도독을 잡아라', '보성예식장&레트로존', 차밭 별빛 시네마 등 이색 콘텐츠는 MZ세대를 중심으로 SNS 인증과 온라인 홍보로 이어지며 축제의 화제성을 높였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전통 차 만들기와 찻잎 따기 체험을 비롯해 한국차박물관 도예 전시, 차나무 분재 전시회, 녹차 족욕 체험 등이 마련돼 관광객들이 보성 차 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성 차 농부의 마켓'과 '차 판매관'은

보성의 차 농가와 관광객이 직접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됐다. 관광객들은 각 농가의 특색 있는 차를 우려 마시며 재배 과정과 차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보성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서상균 보성다향대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전통 보성차문화에 글로벌 찻잎 따기 체험을 비롯해 한국차박물관 도예 전시, 차나무 분재 전시회, 녹차 족욕 체험 등이 마련돼 관광객들이 보성 차 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경제 활성화 '맞춤 지원'

국비 25억5000만원 확보...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여수시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의 국비 25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사업 국비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개 지자체

(여수·서산·포항·광양) 가운데 최대 규모의 국비를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시의 전체 사업비는 기존 49억2000만원에서 85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시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석유화학 산업 내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지원' 분야 예산이

기존 14억3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정 개선,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등 기술 고도화는 물론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력 양성' 분야에는 17억8000만원을 투입해 AI(인공지능), 방폭, 안전관리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 7억6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협약 체결 절차를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 사업을 한층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산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AI로 미리 보는 순천의 미래' 솟품 공모

시, 31일까지 전국민 대상 접수...총상금 500만원

순천시시는 오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순천시 인공지능(AI) 솟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생태와 디지털이 융합된 순천의 미래 비전을 시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인공지능으로 만나는 순천의 미래 모습'을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 순천의 발전된 미래상과 혁신적인 도시 비전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AI 활용도, 창의성, 주제 적합성, 활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팀(200만원), 우수상 1팀(150만원), 장려상 3팀(각 50만원) 등 총 5팀을 선정하며, 수상



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모전 선정된 창의적이고 고품질의 솟품 미디어 콘텐츠는 향후 순천시의 효과적인 시정 홍보 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수 기자 2566pk@gwangnam.co.kr

장흥, 생활 위험 요소 발굴 취약시설 78곳 집중 점검

장흥군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재난 취약시설,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 공장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축사,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등 총 78개소이다.

점검에는 전남도 표본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문화유산 3개소가 포함돼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군은 분야별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및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전기·가스 안전 등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60311@

고흥, 초등생 영어 역량 강화·학습 흥미 유도

3개월 과정 원어민 영어스쿨 놀이 활동 중심 참여형 수업

고흥군은 지역 초등학생의 영어 역량 강화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초등 영어스쿨'을 열고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초등 영어스쿨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 소재 영어교육 전문기관이 운영을 맡아 기초 파닉스 학습을 중심으로 영어의 기본기를 다지고, 세계문화체험, 영어미술, 영어과학 등 다양한 체험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며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업은 선착순으로 모집한 학년별 2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 보조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주 화·목



고흥군 지역 초등학생의 영어 역량 강화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초등 영어스쿨'을 열고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고흥군청

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상·하반기 각각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개강과 함께 진행된 학부모 설명회에서는 영어스쿨의 운영 목적과 연간 교육 일정,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단순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닌 놀이와 활동 중심의 참여형 수업 방식

에 높은 기대를 보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초등 영어스쿨을 통해 고흥의 미래인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만족도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구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내달 1일까지 종합소득 납세자

구례군은 다음달 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세정 지원으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직접 홈택스(온라인)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탁으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 까지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같이 발송되며,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모두채움대상자'중 고령자 등 신고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창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된다.

구례=김귀권 기자 kkkjin@gwangnam.co.kr